

사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이 나라 강산 그 어디에나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뜻깊은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0돐을 맞이하는 이 시각 온 겨레가 뜨겁게 되새겨보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 바치신 장군님의 고귀한 헌신과 그 길우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다.

일찌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들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라고 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자신의 생신날에조차 분별된 조국의 아픔을 두고 그리도 마음쓰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어려와 누구나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기로 온녘을 불태우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석의 자주적신념과 비범한 예지로 온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렬히 투쟁하자》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그의 확고부동한 자주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 굳은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자》를 발표하시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심으로써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또한 주체87(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

방침을 제시하시어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민족분렬의 역사를 기어이 끝낼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대용유훈을 절저히 관철하시어 단으로 두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겨레에게 안겨주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6.15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묶어주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방문하는 남조선의 정계인사들과 기업가를 비롯한 각종 인사들과 해외동포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일에

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어 온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6.15시대에 통일운동이 소수의 운동에서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하여 각계층의 겨레성원들이 참가한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것은 분렬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압도하고 자주통일의 기관차를 힘차게 전진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한없이 고결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계각층인사들과 동포들을 허물없이 만나시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오늘날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내외반통일 호전세력의 범죄적책동을 백승의 보검으로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고 쌓으신 업적은 하늘에도 닿을 크고 위대한것이다.

한평생 민족과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세세년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아버이장군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여기에 자주통일과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대강

우리 겨레의 통일대진군을 가로막으려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약탈해지고있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와 가시덤불이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우리 겨레는 신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통일대진군을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고 통일애국열의로 가슴끓이는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이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사회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리로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령도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

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들과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조선로동당의 주체적통일로선과 투쟁방침을 천명하시어 우리 겨레가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도록 해주시였다.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은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는 길에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그리는 온 겨레의 마음이 대하가 되어 흐르는 2월명절이 눈앞에 왔다.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는 2월의 봄벌에도, 봄의 태동을 전하며 장쾌하게 녹아내리는 눈썹의 흐름에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한생이 어리여있는 듯했다.

온 겨레가 잊지 못하는 장군님의 사랑

절세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열렬한 흠모의 마음안고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민족애, 동포애가 뜨겁게 깃들여졌다.

그이께서는 평양지하철도의 역사들을 장식할 벽화들과 부각상들의 형성도안을 보시면서 거기에 남녘겨레들의 모습도 잊지 말고 잘 형성해달도록 그 주제사상적

내용과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하기에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저저마다 여기 《지하중전》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모습도 보게 되니 겨레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력력히 느끼게 된다고 말하곤 한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남녘동포들이 있었다.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온정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려 조국방문의 길도 열어주시고 총련의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조국의 학생소년들과 함께 설맞이모임에도 참가하도록 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서 살건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조국통일의 영원한 구성원으로 높이 우러르고 따르면서 그이를 열렬히 칭송하고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리경월

언제나 남녘겨레를 생각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남녘의 동포들은 기쁨을 맛보아도 함께 맛보고 싶고 행복을 누려도 함께 누리고싶은 겨레의 일원이었다.

공화국인민들의 행복이 커갈수록 그이께서는 남녘의 동포들을 위해 더욱 마음 쓰시었다.

남녘동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마음은 분별된 조국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신 교시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이런분위기에서 남녘의 하늘에 먹장구름이 비기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비가 내리었고 남녘인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심중에는 아픈 응어리가 지었다.

어느해인가 분계연선지역

에 가셨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에 오면 남녘겨레들의 얼굴을 볼수 있을것만 같다고, 하다못해 그들의 목소리라도 들을수 있을것만 같은데 저렇게 소쩍새만 처량하게 운다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남녘동포들에 대한 생각으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었다.

결에 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어머니심정으로 아버지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락원거리, 광복거리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도 이 좋은 집에 남녘동포들도 들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그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에 받들려 온군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통일거리도 일떠섰다.

《지하평양》으로 불리우는 평양지하철도에도 남녘겨레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57 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모임 (2011년 4월 도표)

에 가셨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에 오면 남녘겨레들의 얼굴을 볼수 있을것만 같다고, 하다못해 그들의 목소리라도 들을수 있을것만 같은데 저렇게 소쩍새만 처량하게 운다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남녘동포들에 대한 생각으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었다.

이런분위기에서 남녘의 하늘에 먹장구름이 비기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비가 내리었고 남녘인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심중에는 아픈 응어리가 지었다.

어느해인가 분계연선지역

에 가셨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에 오면 남녘겨레들의 얼굴을 볼수 있을것만 같다고, 하다못해 그들의 목소리라도 들을수 있을것만 같은데 저렇게 소쩍새만 처량하게 운다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남녘동포들에 대한 생각으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었다.

결에 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어머니심정으로 아버지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락원거리, 광복거리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도 이 좋은 집에 남녘동포들도 들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그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에 받들려 온군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통일거리도 일떠섰다.

《지하평양》으로 불리우는 평양지하철도에도 남녘겨레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그리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오는 2월이다.

어느날 어느 한순간도 그이를 잊어본적 없는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매일 매 시각 그와 함께 흘러온 이 나라의 세월이다.

강철같은 령장의 봄날같은 그 미소라는 노래의 구절과 더불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우뚝이 안겨오는 2월.

해빛같이 따스한 그의 미소는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고 그이께서 한생도록 베풀어주시 사랑과 정은 오늘도 이 나라 남녘로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공화국 어디에서나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을 느낄수 있다.

중산의 동몽선비는 철의 기지에 가만 위대한 장군님 령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폭포지는 주체철의 장쾌한 대하에 대해 어찌 꿈틀들 생각할수 있었는가고 하는 로동자들의 고백을 들을수 있고 드넓은 전야에 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로지화전의 새 력사가

있어 오늘이 있다는 다수확농민들의 걱정을 들을수 있다.

과학자를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과학자들의 청을 들으시고 매년, 매월이 과학결과 같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온정을 전해가는 과학자들, 후대교육사업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신대 그이를 못잊어 눈물짓는 교육자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을 떠나, 그이께서 지켜주신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 자신들의 인생과 아름다운 희망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이 굳건히 다져진 최강의 군력을 보아도 장군님 결코결오시던 선군जी이 눈물겹게 어려오고 그이께서 물으신 만물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풍만한 열매로 주렁지는 자랑찬 현실을 보아도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찾아 달리던 야철철차의 그 모습 눈앞에 어리여온다.

최근 몇달동안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련차에서 속삭이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그날까지 언제 한번 집에서 편안히 발원잠을 잘것같지 못합니다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교시는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후텁게 적신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그리움속에 영생하신다.

민족의 아버지를 그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장군님의 영원한 태양의 모습을 안겨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이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했건이 그리도 절절하여 오열을 터지던 인민들의 인 가슴을 녹여주던 조의식장들에 절세위인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를 늘 가슴깊이 안고 살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어 장군님의 초상화를 태양상으로 바꾸어 모시자고, 그러면 민족이 넘쳐나고 나라가 흥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절세위인의 태양상이 빛나는 공화국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그 길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던가.

공화국의 일십의 단결력은 백배로 강해지고 군력은 최대로 다져졌으며 가는 곳마다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평양시만 놓고보아도 러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과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간과종합병원, 문수물놀이장, 평양야로원, 평양육아원, 평양애

육원을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들이 훌륭히 일떠서 아름답고 황홀한 세계를 펼쳐주고 송신, 송화거리의 특색있는 대건축과 아름다운 구슬들을 깨어놓은듯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자기의 훌륭한 자태를 자랑하고있다.

삼지연시와 마식령스키장,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연풍과학휴양소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경치좋은 곳들마다에도 문명의 별천지들이 솟아올랐다. 저 멀리 동서해기슭과 분계연선마을, 북변의 시간오지와 바다의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이 땅 그 어디에나 사회주의 선명함을, 선경도시들이 황홀하게 솟아올랐다.

연계인가 삼지연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보고 또 보시며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어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에게 가장 값있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는데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 고결한 총정의 세계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은 현실로 꽃피고 장군님은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업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온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더욱 불타고있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며 죽음의 나라락에서 헤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인념과 의지의 강자로, 불굴의 통일애국인으로 높이 내세워주셨으며 행복의 최절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이다.

더우기 우리 가정에 둘러주신 그의 사랑은 참으로 한량없이 깊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딸애의 이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지어주시었다.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 우리 가정에서 딸애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태어난 아기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주셨고 하시며 친히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다.

태어나 고교성을 띤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사랑보다 먼저 이 몸을 따스히 감싸안아준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

축복이 자기 자신의 작품집 《태양의 축복을 노래합니다》에서 심금을 울린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딸애는 성장하였다.

그이께서는 축복이 태어났을 때 산모와 새 생명을 위하여 귀

를 모소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온정에 떠받들려 성장한 축복이는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나라의 역군이 되기 위해 배우고 또 배우고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삶의 인연이시고 영원한 태양이시이다.

나는 축복이에게 당부하곤 한다.

은혜로운 태양의 축복을 받아안은 행운아로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장군님의 념원을 꽃피우는 길에 모든것을 바치라하고.

그리고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이 되라고 축복하여주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라하고...

리재흥 (비전향장기수)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올해는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적발전을 위한 거창한 투쟁이 예고되어있는 의의적인 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은 올해를 지난해의 양양면 기세가 더 불라고 그 기세가 이진되어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 기초를 닦는 해로 되게 하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대진군의 보복을 더 크게, 더 힘차게 내걸고있으며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열의에 넘쳐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시기에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분별주의 심화와 로고를 기을 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합경남도 합주군

공화국의 북변 경성군의 중평지구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대규모의 온실남새농장이 일떠선지가 어제 같은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온실남새농장이 건설되게 된다니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있다.

군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을 영원히 존엄하고 위용높은 강국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친시 그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되새기게 해준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강철의 신념과 담력으로 부흥공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인민의 행복과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고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기는 부흥공국의 세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110년대를 사회주의 전진적발전을 위한 투쟁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신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행하신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

고조되는 위인칭송의 열기

《김정은시대연구》(제1권)가 출판되었다.

《김정은시대연구》의 집필목적에 대하여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에 김정은시대의 개막이 선포된것과도 하여 지난 10년동안 북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력사적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었다.

그러면서 도서를 한편으로 쓸 생각이었지만 내용을 담기에 한편이 너무 부족하고 더구나 책을 다 쓰고 함께 발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도서를 기다리는 독자들과의 심증을 헤아려 먼저 한 권을 출판하게 된다고 하였다.

남조선에서 《김정은시대연구》(제1권)가 출판된것은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끝없이 흠모

하며 따르는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 시대적추세의 반영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지난 10년간 남들이 수렴하지 못한 경이로운 경이로 이룩한 행성을 들었어놓았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지난 10년간 하루가 다르게,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였다.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송마구락부, 과학기술전당, 문수물놀이장,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 삼지연시, 중평남새온실농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결코 건설의 대변명기만이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아이들이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어리워는 교복을 입고 《민들레》학습장을 쓰며 《소나무》책가방을 메고다니는 현실도 펼쳐졌다.

뿐만아니라 하늘에서는 공화국이 자기의 힘과 기술로 만든 비행기들이 날고 지하고 땅에서 자라는 자력경쟁의 창조물인 전동차와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가 달리는 가슴벅찬 사면들이 일어났다.

공화국이 남들 같으면 열백번 더 더 주저앉았을 사상최악의 역경속에서 순간의 좌절이나 동요 없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승리만을 안아올수 있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공화국의 북변 경성군의 중평지구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대규모의 온실남새농장이 일떠선지가 어제 같은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온실남새농장이 건설되게 된다니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있다.

군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을 영원히 존엄하고 위용높은 강국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친시 그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되새기게 해준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강철의 신념과 담력으로 부흥공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인민의 행복과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고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기는 부흥공국의 세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110년대를 사회주의 전진적발전을 위한 투쟁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신다.

《김정은시대연구》(제1권)가 출판되었다.

《김정은시대연구》의 집필목적에 대하여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에 김정은시대의 개막이 선포된것과도 하여 지난 10년동안 북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력사적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었다.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대진군의 앞장에 서시여

세계 떠돌이 일대가 완전히 친대국적으로 융합시를 비롯한 합남도인민들의 식생활에 보편을 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실남새농장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또한 온실농장을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게 기술자, 종업원선발교육을 따라세우며 남새종자보장과 농기계, 영농물자확보를 동시에 내밀어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온실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듦으로써 일떠세울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인민을 위한 일을 가장 중차대한 사업,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제1차적인 사업으로 간주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만 이렇듯 가슴뜨거운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실수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 안녕을 위해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투쟁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신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행하신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

고조되는 위인칭송의 열기

《김정은시대연구》(제1권)가 출판된것은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끝없이 흠모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한 약재와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었고 딸애의 성장과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부모도 출수 없는 사랑과 정을 거둬들여 안겨주시었다.

특히 축복이 우리 글을 갖 익히게 된 유치원시절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보고싶어 태어나 첫 편지를 장군님께 쓴다는 것과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 모습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 앞으로 글공부랑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가 담긴 편지를 올리었을 때에는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4)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장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는 범민족대회가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져있다.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남조선당국은 7.4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게 《북방정책》과 《(두개 조선)의 국제적합법화》를 내놓고 분령연구고착화책동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하면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래왕도 가로막아나섰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평양을 방문하였던 문익환목사와 《전대협》 대표를 철창속에 가두고 참을수 없는 박해를 가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조성된 정세는 북과 남, 해외에서 사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서로 연대연합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민족대단결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이를 위해 1990년 8월 판문점에서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를

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 1990년 8월 13일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개막식과 《조국통일축전 백두-한나대행진》출정식이 성대히 거행되게 되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민족분열의 비운이 서려있는 판문점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가 민족공동의 역사적인 회합으로 성황리에 열리었다.

범민족대회에서는 대표들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대회의정으로 상징시켜 토의하였으며 대회의결의문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남당국과 유엔사무총장,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와 일련의 문건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1차 범민족대회와 그후 해마다 진행된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삼천리강토에는 통일운동의 격류가 세차게 굽어왔다.

그러던 우리 겨레는 너무도 뜻밖에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게 되었다.

은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절통함에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고있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1994년 8월 15일을 계기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주제83(1994)년 8월 4일과 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당 부분의 일군에게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이번이 진행되는 8.15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거행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범민족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과시하도록 특색있게 개최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이리하여 그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5차 범민족대회가 평양과 서울, 도쿄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에 도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진행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하시었다.

주제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당 부분의 책임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

을 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 다음날인 1월 2일과 4일에도 일군들에게 조국통일사업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주제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 앞에서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통일각에 둘러시었다.

통일각의 내부를 일일이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건설유래와 통일각에 깃들여있는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감회깊이 들려주시었다.

그리시면서 자신께서 건물의 이름을 《통일각》이라고 지어주었다고 말씀하시었다. 《통일각》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하시던 그이의 음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민족분열의 한이 응집되어있는 판문점에 통일각까지 세워주시였는가. 통일각이 건설된 후 북남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통일각에 왔던 남측기자들은 회담장이 정말 멋있다고, 이남당

사들의 정치사상적수준에 있어서 통일운동사상 처음으로 되는 대정치축전이었다.

이 대회에는 축전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국련합》, 《한총련》과 민주로총의 대표들, 민주로총 로동자통일축전추진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와 지역들에서 온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하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자련합대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작곡식, 북과 남, 해외통일예술축전 및 체육행사, 조국통일상수여식, 북남로동자축전경기 등을 비롯하여 다채롭고 특색있는 정치, 문화, 체육행사가들 큰 규모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8.15를 계기로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개최됨으로써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러 더욱 힘있게 추진되게 되었다.

본시기자 주일봉

축원의 인사를 받으시면서도

주제62(1973)년 2월 15일, 이날도 은 하루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깊은 밤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사업을 의논하시었다.

벽시계가 2월 16일 새날을 알려자 일군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께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동무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일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부락으로 알고 받겠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가 같길은 아직도 멀고 협하다고, 그러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을 볼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림이라고 하시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었다.

남녘 동포들이 그림 다시며

주제64(1975)년 2월의 탄생일을 접무실에서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무렵 어느 한 단위를 찾으시고 그곳 일군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을 볼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림이라고 하시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었다.

통일을 위해 열밤도 새겠다고 하시며

주제65(1976)년 2월 16일 저녁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밤을 동무들과 보내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다른 날도 아닌 자신의 탄생일에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밤도 조국통일 문제를 놓고 잠 못이루신다고, 조국통일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교시하시었다.

본시기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동무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일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부락으로 알고 받겠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가 같길은 아직도 멀고 협하다고, 그러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한해에 한번밖에 오지 않는 뜻깊은 생신날의 한밤마저 분별된 조국 땅 남쪽에서 수년받는 인민들을 그리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은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라야 할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시고 일군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도 차근차근 말씀해주시었다.

그리시고는 조국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리 밤을 열밤도 새겠다고 하시었다.

본시기자



민족의 념원람아 세워주신 통일각

민족분열의 비극이 짙게 드리워있는 판문점에는 통일각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주제73(1984)년 초가을 판문점에 있는 판문각이 협소한것을 고려하시어 일군들에게 통일행사들을 원만히 치를수 있는 집을 한채 잘 지을데 대하여 과업을 주시고 친히 설계도면도 보아주시였으며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시었다.

주제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 앞에서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통일각에 둘러시었다.

통일각의 내부를 일일이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건설유래와 통일

각에 깃들여있는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감회깊이 들려주시었다.

그리시면서 자신께서 건물의 이름을 《통일각》이라고 지어주었다고 말씀하시었다.

《통일각》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하시던 그이의 음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민족분열의 한이 응집되어있는 판문점에 통일각까지 세워주시였는가. 통일각이 건설된 후 북남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통일각에 왔던 남측기자들은 회담장이 정말 멋있다고, 이남당

국자들은 통일의지가 없다보니 통일을 상징하는 이런 건물 지을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었다.

통일각에는 통일선각자들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통일념원을 담아 판문점에 세워주신 통일각에서는 지난 시기 범민족대회와 각종 통일행사들이 진행되어 북과 남, 해외 은 겨레의 단합된 위력과 통일 의지를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주제64(1975)년 2월의 탄생일을 접무실에서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무렵 어느 한 단위를 찾으시고 그곳 일군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을 볼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림이라고 하시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었다.

통일을 위해 열밤도 새겠다고 하시며

주제65(1976)년 2월 16일 저녁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밤을 동무들과 보내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다른 날도 아닌 자신의 탄생일에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밤도 조국통일 문제를 놓고 잠 못이루신다고, 조국통일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교시하시었다.

본시기자

주제62(1973)년 2월 15일, 이날도 은 하루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깊은 밤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사업을 의논하시었다.

벽시계가 2월 16일 새날을 알려자 일군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께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동무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일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부락으로 알고 받겠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가 같길은 아직도 멀고 협하다고, 그러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을 볼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림이라고 하시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었다.

남녘 동포들이 그림 다시며

주제64(1975)년 2월의 탄생일을 접무실에서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무렵 어느 한 단위를 찾으시고 그곳 일군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을 볼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림이라고 하시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었다.

통일을 위해 열밤도 새겠다고 하시며

주제65(1976)년 2월 16일 저녁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밤을 동무들과 보내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다른 날도 아닌 자신의 탄생일에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밤도 조국통일 문제를 놓고 잠 못이루신다고, 조국통일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교시하시었다.

본시기자

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진정 민족의 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불같은 헌신과 로고로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날도 통일각과 더불어 민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본시기자 김혜성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주제81(1992)년 2월 어느날 점심무렵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국에 온 총련중앙의 한 부의장부부를 친히 저택으로 불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먼저 잔을 드시고 부의장동무와 부의장동무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말씀하시었다.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줄 몰라하는 부의장과 그의 부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본의 정치체제며 경제형태, 조국과 총련의 예술발전문제 등에 대하여 흥미있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부의장동무가 든 속소에서는 일반식사만 내지 않는가고 물으시었다.

국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다 낸다는 부의장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료리사들이 음식을 편하게 만든다고, 부의장동무는 지금 들어있는 속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라 하듯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부의장의 부인을 바라보시며 일본에서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는것이 값이 높은가 아니면 원자재를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것이 값이 높은가고 물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음식감을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것이 돈이 적게 든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아마 그럴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직 우리 음식에 익숙되지 않아서 구미에 잘 맞지 않을수도 있는데 음식을 많이 들고

하시었다.

부의장부부는 어려움을 잊고 음식을 맛있게 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퍼그나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가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쉬움이 짙게 내뻐인 안색으로 부의장에게 앞으로 1년에 한번씩 조국에 오는것이 좋겠다고, 그저 친정집에 오는것으로 생각하고 와서 마음놓고 참관도 하고 휴식도 좀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물론 우리의 생활이 아직 유족하지 못하다보니 부족점도 있을수 있으나 조국은 어디까지나 조국이라고, 부족점들이 좀 있어도 탓하지 말고 조국에 오면 자신께서는 부의장동무를 언제나 반갑게 만나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부의장동무의 부인도 매해 남편과 같이 조국에 와야 한다고, 일본에 돌아가면 앓는 어머니께 자신의 인사를 전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부의장동무의 부부가 앞으로 말하게 집에 오는것으로 생각하고 조국에 자주 오기를 바란다고 하시었다.

속주치는 격정과 감사의 정을 안고 올리는 그들부부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관밖에까지 나오시어 따뜻이 바래워 주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공화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친어버이시였다.

《통일운동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지도자》

남녘 각계의 목소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리치는 남녘 겨레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목소리는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크게 빛내시었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6.15통일시대를 활짝 열어 7천만겨레의 전도로 크나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있으며 국제문제도 정확히 꿰뚫고있었다.》(남조선의 전 통일 부 장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을 길이가 길이의 마음속에 기억할것이다.》(남조선의 현대그룹 회장)

《우리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이북민중만의 령도자가 아니라 전

체 조선의 령도자라고 믿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 통일운동, 혁명운동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지도자는 없습니다.》(남조선의 《백두청년회》 회장)

《두차례의 남북수뇌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점표를 만들어 내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력사적발걸음은 각계 민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남조선의 진 보련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리점표를 수놓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과 로고는 력사가 기억할것입니다.》(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은 겨레를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이 땅위에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주시었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오늘날도 위대한 태양으로 영생하게되신다.

본시기자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진행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월 8일 평양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 대미대적강령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전진민적진군에 적극 이바지할 실천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진행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월 9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 대미대적강령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전진민적진군에 적극 이바지할 실천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올해의 주요정책적과업들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중점되는 난관과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향도의 기치이고 전진적 동력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올해의 결사전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올해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업들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으며 이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올해 주요정책적과업들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방도들을 반영한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올해 주요정책적과업들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방도들을 반영한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본시기자

시 초

2월에 넘기는 그리움의 찬가

백두산! 그리움의 성산이여

김 태 롱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그리워
 워선가
 뜻깊은 광명성절의 이 아침
 백두는 눈보라를 빙설천지에
 터친다
 휘몰아 천리수해 내닫는 거센 칼
 바람소리
 아, 백두가 터치는 그리움 그리움이여

성산아래 천하를 붉게도 물들이누나
 광명성탄생의 감격으로 설레던 이
 백두에서
 영원한 광명성찬가 리치고싶어라
 장군님 그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산악으로 성스러운 백두산
 너 없어야 어이 조선의 그리움을
 말하랴

인민이 드리는 경모의 꽃바다이
 런가
 백두산밀영고향집
 정갈한 트랙 아름드리거목의 가
 지마다
 눈꽃도 하얗게 은빛세계 펼쳐니
 못건디게 사무쳐오는 장군님의 그
 미소

장군님 탄생하신 백두산
 그이의 영상 그이의 숨결, 박동이
 이 백두에 비끼고 어리어있어
 장군님생각 간절한 광명성절 이
 아침
 친민의 마음 그이품에 안기듯 백두로
 달려가거니

소백수 맑은 물도 장군님 찾고 부
 러며
 가슴젖는 노래 부르고 부르누나
 천만산악 거느린 정일봉마루의 저
 해돋이도
 그리움에 타는 불덩이런듯

에서 우리 영원히 노래하리라
 광명성절의 환희와 격정을
 우리 아버지의 위대한 영생을
 백두를 떠나 그리움을 말할수 없는
 오, 백두산 백두산 그리움의
 성산이여

올려가라 2월의 찬가여

강 은 별

추억은 이렇듯
 노래에 실려오기도 하는것입니까
 광명성절 이 아침
 한해전 2월 무대에 올려져있던 노래
 이 가슴의 심금 울려어줍니다
 《친근한 이름》

우리 원수님의 그리움
 인민이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장군님 한평생이 다 어려웠는 노래
 그 성스런 한생을 뜨겁게 안아
 보시는
 원수님의 그리움이 어려웠는 노래

얼마나 장군님생각 간절하셨으면
 원수님 것처럼 깊은 애정 품으시고
 구절구절 따라 부르셨겠습니까
 얼마나 심중에 그리움 차넘치셨
 으면
 격정의 선률에 심신 맡기신것이었
 습니까

아, 《친근한 이름》!
 이 찬가 2월에 올려 인민의 가슴에
 해빛같은 장군님 미소 안겨주시고
 김정일 친근하고 다정하신 그 존함
 우리 생활에 세세년년 노래로 울
 리게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마치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것같아
 그 회열의 세계에 계시고싶은 마음
 그리도 불같이이어
 원수님 다시 요청하신 노래
 이 노래는 장군님 모시고싶으신
 그이의 열망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목소리로
 어디서나 부르고 부르는 이 노래
 우리 원수님
 대대손손 장군님 모시고 살아갈
 무궁한 세월우에 영원토록 올려
 주시는
 그리움의 찬가 2월의 찬가여

공연은 끝났어도 아쉬움 있으신듯
 거듭 들으셨건만 다시 듣고싶으신
 심정
 원수님 뜻깊게 올려주시는 이 노래
 들을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이름

삼지연은 노래한다

리 송 일

누구나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뜨거운 2월이지만
 백두산밀영고향집과 한뜨락을
 이은
 여기 삼지연땅에 사는

우리의 그리움은 더욱 간절합니다
 흐르는 세월을 하루같이
 마음속에 장군님 모시고 살아왔
 건만

백두산기슭의 새 거리, 새 마을
 들에서
 여든번째 년풍의 광명성절 맞으니
 오늘따라 더더욱 그리워지는
 아버지장군님

현대적인 리상거리 한복판에
 지금도 60여년전 모습 그대로 서
 있는
 한채의 귀틀집에서 우리 새겨부
 니다
 고풍불이 긴긴 밤을 태우고
 못침승들 울부짖음에 문풍지가
 울던
 이 귀틀집에 장군님 모셨던 그날을

소년담사행군대오 이끌고 오시였던
 장군님
 앞으로 삼지연지구는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세상에 없는 훌륭한 도시로 될것
 이라고
 뜨겁게 하시던 그날의 그 음성이어

그날 장군님 우리에게 그려주시던
 인민의 지상락원
 정말 우리 삼지연땅에 일떠섰습니
 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새 거리며 아
 담한 살림집
 즐비하게 늘어난 봉사망들이며 희
 환한 궁전...
 못내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습
 니다

이런 행복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한평생 생신날, 명절날에도
 방방곡곡 험한 길 걷고 걸으시던

길에 대한 생각

유 현 의

잠들 줄 모르는 밤
 그리움으로 깊어가는 2월의 밤
 불밝은 수도의 거리에 나서니
 뻗어간 길이여, 너는 내 가슴에
 하얗은 생각 불러주누나

남녘의 해녀와 배에 오르셨던
 바다길
 오늘도 저 북변에 사연같이 뻗어
 있고
 끊어진 교암선철탑의 송전선
 아프게 바라보시던 대덕산마루
 그 산중엔 세월도 지우지 못한
 장군님자욱

길이란 시작도 끝도 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 한평생 걸으신 통일
 의 길
 그 길엔 끝이란 있었던가
 동일, 동일이 무엇이어서
 그이 그 길 한생토록 걸으시었던가

백리를 가시었다 걸음 멈추셨고
 천리를 가시었다 돌아서신적 있었
 으랴
 겨레를 안고 이 땅의 분열을 끝장
 내시려
 안가보신 길 넘지 않으신 령이 없
 겠만
 줄어들 줄 몰랐던 장군님의 통일
 애국의 길

이 밤길이 통일로 가닿아있다면
 백리, 천리라도 더 가고싶다 하시던
 장군님
 어이 알랴
 내 추억같이 걷는 이 밤길이
 그날에 그이 걸으셨던 그 길은 아
 니지

그 길은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신
 최전방
 위험천만한 관문점의 새벽길로 잇
 달았고
 동일의 응지 품고 삼천리를 굽어
 보시던
 흰눈덮인 백두산마루
 그 아아한 산정에도 닿아있
 거니

장군님 끝없이 가고가신 통일의 길
 마음속에 더듬어보는 2월의 밤길
 삼지연땅에 안아오신 천지개벽일
 니다

나는 걷는다
 장군님 통일한평생의 그 길을 걷
 는다

오늘도 울려오는 종소리

김 영 일

태양의 노래는 이 땅에서만 울리
 는가
 세계의 하늘가에도 울려퍼진 찬가
 장군님 청송하는 인류의 마음
 담아
 오늘도 울려오는듯싶어라
 종소리 종소리...

이 어찌 그만의 심정이었으랴
 머나먼 지역망 그 어디 가시어도
 다함없는 청송 받으신 아버지장군님
 아, 그날의 사연의 종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퍼진 흠모의 환호
 만민이 터치던 매혹의 진정

장군님을 모신 기쁨을 한껏 실고
 사원에 울려퍼지던 종소리
 오랜 세월 어기지 않던 계를을 깨고
 때아니게 울려퍼지던
 은은한 종소리 종소리

비오면 누구나 그 정에 끌리고
 운명을 스펀없이 맡기는 장군님
 넓은 품에 세계를 품어안으시고
 나아갈 미래 밝혀주시는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태양!

세상만물 다 비쳐달라고
 태양이 제일 높이 떠오르는 정오
 그 시간에 종소리 울리던 사원이
 었건만
 장군님 모신 기쁨 하도 큰것이어서
 그 걱정 종소리로 울리고 울렸나니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오늘도 울려오는 그날의 종소리
 그 종소리 울리는 하늘가에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영상이런가
 2월의 태양은 눈부시게 밝아라

우리 사원에 태양이 오셨다고
 태양이 오셨는데 종을 울리는것은
 너무도 웅당한 일이라고
 신부가 심금을 터쳐 드린 감각의
 토로

태양을 따르는 인류의 마음
 그 마음을 실고 울리는 종소리
 세기와 세기를 넘어
 세월의 끝까지 울려가라
 태양청송의 찬가로 끝없이 울려어
 가라

이 땅에 흐른 10년세월은

리 철 준

그리움으로만 흐른 세월이었던가
 이 땅에 흐른 10년세월은
 돌아보면 가슴뜨겁게 어려오누나
 장군님송결 우리의 심장에 이어
 주시며
 우리 원수님 걸어오신 뜻깊은 자욱
 자욱이

장군님 그려보시던 절경이 아니던가
 오곡을 품어안고 불어오는 가을
 바람
 소매 흐르는 싱싱한 들판의 설레
 입소리
 이채어경 펼친 포구에 끊길새
 없는
 만선의 힘찬 배고동소리
 장군님 바라시던 행복의 노래 아
 니던가

못건디게 장군님 그리울수록
 그 그리움으로 타는 가슴에 인민
 을 안고
 원수님 헤쳐오신 헌신의 자욱자욱
 장군님뜻으로 해와 달 빛내여
 오신
 그 자욱은 10년세월에 빛뿌리누나

우리의 힘은 또 얼마나 강해졌
 는가
 강권을 휘두르는 독재의 광란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대한
 조국
 존엄은 더 높이 우주로 솟고
 력사의 광풍 길들여 위용 떨치는
 이것이 장군님 바라신 조선의 힘
 이었으니

얼마나 눈부시게 달라졌는가
 우리 사는 이 땅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장군님 바라셨던 그 모든 리상
 인민이 누리려는 행복, 만복의 재부
 로 펼쳐신
 오, 원수님의 불타는 총정이어!

정녕 장군님 평생년원 꽃피운
 10년
 태양의 줄기찬 역사만을 이어온
 10년
 그것은 우리 원수님
 가장 열렬한 그리움으로
 가장 불같은 총정으로
 2월의 이 아침에 삼가 드리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송가여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을 경축하여

중앙 사진 전람회 개막

전국미술축전 《애국헌신의 한평생》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제 10 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 개막

우표 전시회 개막

남북통일협력사업의 성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첫째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은 국가의 혜택속에 보람찬 노동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얼마전 취재차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찾았을 때 이것을 더 잘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가공직장에 들어섰을 때 작업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응성이고있었다. 《로동안전원아바이, 이제 잠깐이면 가공됩니다. 이 설비생산이 늦어지면 중요대상조립이 늦어진다는 건 왜 생각 못했을까?》 《로동안전을 지키는것이 내 개인의 요구인줄 아는가. 작업을 당장 중지하고 사고요소를 찾으시오.》

이 무슨 일이 나겠다고...》 생산이 바쁘다는 구실로 기대 정비를 소홀히 하였던 기대공은 불분은 소리로 증언하였다. 이때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작업반장이 앞으로 나서서것이였다. 《아바이,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생산만 생산이라면서 로동안전교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잠시후 기대수리를 하는 기대공에게 작업반장은 차근차근 깨우쳐주었다. 《동무도 해방후 나라에 강제 11이 더없이 귀중하였지만 원철로를 폭파해버린 사실을 알고있겠지. 생산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더 귀중하기에 로동안전원아바이도 요구성을 높이는거야.》

로동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와 영양제, 여러가지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는것도 국가의 법으로 담보되고있다고 말해주는것이였다. 《어서 창고장이주머니에게 가보라구. 동무 기대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때문에 자재접수도 못하고 기다리고있어.》... 그때만이 아니였다. 얼마전에 만난 공화국 로동성의 한 일꾼은 《우리 나라에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동안전보호시설과 문화생활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할바하는

데 커다란 국가적힘을 넣고있습니다. 특히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조건보장에 각별한 관심이 돌려지고있습니다. 녀성들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마다에 국가부담으로 운영되는 탁아소, 유치원들이 설치되어있으며 녀성들의 건강보호와 위생에 필요한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습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광범한 사실을 가지고서도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느낄수 있다.



남조선의 곳곳에서 부모, 형제, 자식들을 잃은 가족들의 울분에 찬 통곡소리가 계속 울리고있다. 아나바와 같이 평택 평동창고 신축공사장에서의 화재, 서울-부산행 열차의 탈선, 전라남도 광주에서 건설중이던 건물위벽의 붕괴 등 남조선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사고들이 연이어

재벌들의 리윤과 리익이 우선

일어나 수많은 인명피해를 빚어냈다. 이것은 새해에 들어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든다는 당국의 천명된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현실이다. 남조선에서 그 무슨 긴급대책

을 세운다. 《중대재해처벌법》만 시행되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것을 소리들이 울려나왔지만 그것은 《누대기법》, 《살인기업보호법》으로 취급되고있다. 재벌들의 비위에 맞추어만

들어간 빈집떼기법인 법,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탐욕적인 리윤을 우선시하는 그런 법이 어떻게 근로대중의 운명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후진국형인재》, 《새해에 들어와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평양교원대학 (3)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8년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였다. 이날 대학의 교육과학전시관, 교육조종실, 다기능교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그분의 존안에 시종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의 눈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감격이 어려있는듯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공명석을 마른해준것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듯 그려진다고 대단한 감격을 표시하시었다고 한다.

그분께서는 평양교원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 학생들이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운 과학적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야 한다고 절절히 이르시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면서 학생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연구 창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용로봇을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새로 연구한데 이어 직관형상적사고가 우세한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관찰력을 기본으로 한 지능평가 3차원형상형식기술을 리용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평가방법도 착상하였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이밖에도 대학에서는 소학교 학생들의 발표능력을 높여주고 그들의 인식정도와 교수분위기 등을 예측하여 수업내용을 조정하고 어린이들의 사고력, 기억력, 관찰력, 상상력, 언어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시키는 지능개발교육정확도 향상교육정확도를 새롭게 체계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교수실천능력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이 대학교원, 연구사들의 지혜와 기술, 협력의 산물이었다. 내가 몹시 놀라워하자 학생은 조국에서는 교육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국가중대사로,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중차대하고 전략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날의 교원후비들을 당에서 바라보는 높이에서 키워내겠는가에 대하여 언제나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라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날 나는 이 대학을 찾았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남긴 글들도 볼수 있었다. 아래에 인상적인 글들을 그대로 옮긴다. 《자기 아이들을 위해 이처럼 큰 관심과 사랑을 돌리실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면서 학생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연구 창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용로봇을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면서 학생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연구 창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용로봇을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면서 학생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연구 창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용로봇을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면서 학생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연구 창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용로봇을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면서 학생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연구 창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용로봇을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면서 학생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연구 창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용로봇을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강력범죄가 성행하는 지옥같은 남조선사회

최근 남조선에서는 경기침체에 의한 생활난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과 퇴폐적인 사회풍조 등으로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져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가족을 대상으로 감행된 강력범죄는 한해 평균 69건으로서 전체 살인사건의 5%를 차지하며 현인들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건수도 지난 5년간 6만 130여건으로서 그중 살인은 227건, 성폭력은 644건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녀성들이 갖 태어난 자식을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건은 한해 평균 145건으로서 한달에 12건이상이나 발생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언론들조차 현인들사이의 폭력, 살인의 바탕에는 성차별의식이 깔려있다. 남조선사정에 경보음이 울리고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폭행 등의 범죄가 선전국의 3~4배에 이른다고 하면서 남조선은 강력범죄에 의해 부리체 흔들리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한편술을 먹고 사는 혈육간에도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정도이니 남을 위해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남을 등쳐먹고 강탈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더욱 심각한것은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들이 강력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미성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일부는 그 수법과 잔혹성에 있어서 성인범죄 못지 않다고 한다. 2019년 12월 경기도의 초등학교 5학년 녀학생이 말다툼과정에 친구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범하였다는 비률은 각각 41.9%, 36.4%로서 생활비마련(7.8%)이나 유용(4.3%) 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간사회에 차고넘쳐야 할 사랑과 정이 말라버리고 도덕적으로 썩어대러 썩은 남조선사회에서 극도의 인간중요상이 만연하고 온갖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범하였다는 비률은 각각 41.9%, 36.4%로서 생활비마련(7.8%)이나 유용(4.3%) 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간사회에 차고넘쳐야 할 사랑과 정이 말라버리고 도덕적으로 썩어대러 썩은 남조선사회에서 극도의 인간중요상이 만연하고 온갖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범하였다는 비률은 각각 41.9%, 36.4%로서 생활비마련(7.8%)이나 유용(4.3%) 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간사회에 차고넘쳐야 할 사랑과 정이 말라버리고 도덕적으로 썩어대러 썩은 남조선사회에서 극도의 인간중요상이 만연하고 온갖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범하였다는 비률은 각각 41.9%, 36.4%로서 생활비마련(7.8%)이나 유용(4.3%) 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간사회에 차고넘쳐야 할 사랑과 정이 말라버리고 도덕적으로 썩어대러 썩은 남조선사회에서 극도의 인간중요상이 만연하고 온갖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범하였다는 비률은 각각 41.9%, 36.4%로서 생활비마련(7.8%)이나 유용(4.3%) 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간사회에 차고넘쳐야 할 사랑과 정이 말라버리고 도덕적으로 썩어대러 썩은 남조선사회에서 극도의 인간중요상이 만연하고 온갖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범하였다는 비률은 각각 41.9%, 36.4%로서 생활비마련(7.8%)이나 유용(4.3%) 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간사회에 차고넘쳐야 할 사랑과 정이 말라버리고 도덕적으로 썩어대러 썩은 남조선사회에서 극도의 인간중요상이 만연하고 온갖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수신년세월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고상한 미풍,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청년들의 소행, 사경에 처한 환자들을 위해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얼마전 수년세월 정을 다해한 원아를 키운 나라에 소개된 처녀어머니 최선희와 그와 일생을 같이할 결심을 품은 청년대학생이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서로마다 그들의 결혼식을 차려주겠다고 나섰다. 그런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어느 한 단위의 일꾼으로 일하는 강연우 녀성도 있다. 하지만 그가 여러명의 영예군인을 수년세월 돌봐주고있으며

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갖가지의 미덕과 미풍의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뜨거운 사랑과 정, 헌신으로 나라 인민들을 한몸에 안아미덕, 미풍의 소유자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사랑과 정이 대화원은 더욱더 만발할것이 아니라.

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갖가지의 미덕과 미풍의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뜨거운 사랑과 정, 헌신으로 나라 인민들을 한몸에 안아미덕, 미풍의 소유자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사랑과 정이 대화원은 더욱더 만발할것이 아니라.

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갖가지의 미덕과 미풍의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뜨거운 사랑과 정, 헌신으로 나라 인민들을 한몸에 안아미덕, 미풍의 소유자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사랑과 정이 대화원은 더욱더 만발할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대화원

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갖가지의 미덕과 미풍의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뜨거운 사랑과 정, 헌신으로 나라 인민들을 한몸에 안아미덕, 미풍의 소유자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사랑과 정이 대화원은 더욱더 만발할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대화원

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갖가지의 미덕과 미풍의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뜨거운 사랑과 정, 헌신으로 나라 인민들을 한몸에 안아미덕, 미풍의 소유자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사랑과 정이 대화원은 더욱더 만발할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대화원

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갖가지의 미덕과 미풍의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뜨거운 사랑과 정, 헌신으로 나라 인민들을 한몸에 안아미덕, 미풍의 소유자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사랑과 정이 대화원은 더욱더 만발할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대화원

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갖가지의 미덕과 미풍의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뜨거운 사랑과 정, 헌신으로 나라 인민들을 한몸에 안아미덕, 미풍의 소유자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사랑과 정이 대화원은 더욱더 만발할것이 아니라.



시론 더욱 평화 파괴자의 피해자로서의 난정체

구밀복검이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으로는 칼을 가는 위선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평화》의 넘볼을 월세없이 외위오지만 뒤돌아서서는 침략전쟁준비에만 몰두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이중적태도, 위선적인 망동이 바로 그러하다.

최근에도 남조선호전세력은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F-35A) 도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대잠제기 6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미국주도의 다국적연합공중훈련에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한편 대대급의 화생방특수입부대를 확대하여 확대개편한다. 120mm 자행박격포를 실전배치한다. 《수도포병려단》의 《2022년 훈련기》 훈련을 강화한다고 설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스텔스전투기(F-35A)는 동족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킬체인》에서 핵심이 될것이며 화생방특수입부대도 《북을 겨냥한것》이라고 하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벌리는 무력증강과 전투력재성능을 이 추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명백하게 밝힌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정치간상배들의 진부한 타령

공화국의 자위적역역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정의의 힘이라는것은 남조선선심파 세계가 인정하는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조선여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동족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에 대해 《도발》, 《벼랑끝전술》이라고 헐뜯고있다.

지어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후보 윤석열은 《선제타격》이니, 《한미합동군사훈련 정상화》, 《(싸드) 추가도입》, 《(국방백서)에 북을(주적)으로 명시하겠다》와 같은 극히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악담까지 공공연히 제치고있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쫓겨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과 한쪽이 되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발전권을 지키려는 동족의 정당한 자위적권리행사에 대해 그렇듯 악랄하게 헐뜯을수 있단 말인가.

여야후보들은 자기들이 싸구려광고판과 같은 녹거리공약을 아무리 쏟아내도 남조선선심파 들은척도 안하는것이 과연 무엇때문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것을 모르니 귀간지러운 공약만 람

대결광의 허세 최송견

반복에 쫓겨들기들이 썩은 각본 그대로 외위대는 천치같은 주제에 제법 허세를 부려 휩소리치누나 《국민의힘》꼭두각시 윤석열 대결의 승곳이 드러내고 으르렁 대누나

말로 웨치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 실현하겠다는 북에 《선제타격》하겠다는 가스통다 거품물고 토하는 그 객기 정말 삶은 개가 다 웃을 일이 로다

하루강아지처럼 잘은 짓누나 군대법이란 하루도 못먹은자가 총이나 제대로 칠줄 알며 그러는지 소리나 질러대면 용감한줄 아느냐

역스러운 그 추태에 속이 울컥 치민다

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쳐버린 반역당 《국민의힘》이 내세운 후보답구나

실폐한 《대북정책》부사관 내들고 죽을등살등 모르고 날치누나

갈지 않은 횡설수설 더럽게는 뱀어내누나

얼마나 너의 광기 소름이 돋혔으면 전쟁에 들뜬 호전광이라 민심이 쫓겨나

북만 자꾸하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

이물수 없는 허세성공약이라 하나같이 환멸과 조소를 쏟아내겠다

들리지 않느냐

망언을 백주에 꺼리겟없이 지겟이는

윤석열 너를 두고 《당선》되면 전쟁 일어난다

일과만파로 퍼져가는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도 자명하거나

미련한 윤석열과 역적당의 앞날이 자멸을 재촉하는 공약나발 붙어

대며

망상에 빠져 설레발치지 말고

불지른 놈 그 불에 타죽는다는

그 말의 뜻이나 다시 한번 곰씹어라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가는 망언》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후보 윤석열의 《외교안보공약》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의 《외교안보공약》이라는것은 그 무슨 《대북제재》강화와 《북인권제한》 등을 통한 《실사구시》, 《상호주의원칙》과 《신뢰회복을 통한 한미

동맹제전》 등 등에 닿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엮여진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공약》이 리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례한 《대북정책》과 본질상 다를바없다고 평하고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각계 시민단체들은 《북을 자

국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 《실현가능성이 없는 모순투성이공약》, 《불안감만 키우는 선무당공약》, 《무능, 무지, 모순, 사실의 곡란 보여줬을뿐 아니라 근거없이 국민불안과 분노만 자극하는 공약》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윤석열의 《대북선제타격》 망발에 대한 각계의 비난도 날로 커지고있다.

한 선제타격론은 일본국우세력의 적지공격론과 유사하다.》 등으로 윤석열을 준렬히 성토하며 그의 《대통령》선거후보직사퇴를 주장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군통수권도 지지 못한 처지에서 떠벌인 허세성공약》, 《미국으로부터 전직장관전례도 회수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국민의힘》이 무슨 수로 선제타격을 하는가》라는 조소의 목소리도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고있다.

갈수록 증폭되는 정치권에 대한 환멸감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막대한 가운데 여야당선 후보들의 부정부패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각 정당들의 내부싸움이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것으로 하여 정치권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뉴스시》, 《헤럴드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자고나면 터지는 여야사회의 폭로공방은 유권자들을 실망케 하고있다. 여야 유력대선후보들의 비호감은 력대급이다》, 《대선후보본인의 과거문제가 대선전 비방, 폭로전으로 비화된 경우도 전례를 찾기 어렵지만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주요요중대상이 된 전례도 없었다》, 《네거티브(비방전)가 판치는 《력대급 비호감대선》이라는 비판을 받은 정도로 대선이 비방, 폭로전으로 비화되다보니 여야의 고발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선심성공약과 환

색언어가 만무하고 음모론과 네거티브가 점입가경이다》, 《후보본인의 부패의혹과 가족 리스크(위험)로 질철된것이 이번 대선의 특 징이다》고 하면서 여야당들의 내부싸움과 선거후보들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있지만 대부분이 특정정당의 이해를 의식하는 증폭적공약들, 지지율이 낮은 세대와 계층을 의식하는 립기용변적공약들》이라고 하면서 《협오와 적대의 선거에서 승자가 누가 되든 후유증은 상상이상일것이다》고 평하고있다.

이밖에 남조선의 언론들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보충선거의 후보추천권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안에서 알뜰이 조성된대 대해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의 홍준표가 윤석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신 자기의 측근들을 《국회》의원 보충선거후보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것을 두고 량측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있다고 하면서 《당내 내용을 불러온 공천방식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것》이라고 평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설명절기간에 또 여야당의 후보들이 민심을 끌어당겨 선거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물》전달, 명절인사, 공약발표 등 극성을 부렸지만 민심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있다고 한다.

민생은 안중에 없이 권력 야망에 환장이 되어 돌아 가는 정치시정배들에게 남조선선심파 들을 둘러대고 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남조선잡지 《한겨레》이 치밀리는 폭력의 대상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녀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것중의 일부를 전재한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남조선에서 녀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하나의 사회적공으로, 고질적인 악습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편의 폭력으로 따로 살고있는데 심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물론 흉기로 위협당하기도 한다. 도움 받을 곳이 없다. 고립된 생활이 이어지고있다》

《아비란 사람이 회사모임에 가져갈 어머니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져 눈에 멍이 들게 하였으며 그 멍을 보며 참대못같다고

한을 발로 차고 주변의 물건으로 폭행을 하여 몸에 멍이 들었다.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발로 찬적도 있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막아서다가 아버지에 발길질당하고 맨손으로 맞았다.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형박했으며 (넌 내 인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면 이웃들이 나와 구경했지만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

《7살때 부모님이 리혼한 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며 나를 때렸다. 어머니를 닮아 재수없다는 이유다. 살려달라고 웨쳤지만 아버지는 나를 거꾸로 든채 안방에 내팽개치거나 피멍이 들 때까지 마구잡이로 때렸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는데 경찰은 가정일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돌아갔다. 그뒤로 아무리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러도 그냥 참게 됐다》

이들은 녀성폭력으로 더이상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절구한다. 이 세대의 고통을 다음세대로 넘기지 않기를 눈물로 토로했다.

피해자들의 분노에 환절규

가 어디 남자한테 말대꾸하며 발로 배를 걷어차고 입을 차서 입안이 다 리었다. 헤어지자고 하니가 흉기로 찔러 죽여버린다면 협박하고 때렸다》

《내 몸을 자기 취향에 맞추려 했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마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넌 내 인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를 발로 차고 주변의 물건으로 폭행을 하여 몸에 멍이 들었다.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발로 찬적도 있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막아서다가 아버지에 발

길질당하고 맨손으로 맞았다.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형박했으며 (넌 내 인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파렴치한들

이웃집에서 담장을 든든히 쌓는다고 하여 저희 집에 위협이 된다고 고야대는 자가 있다면 아마 정신병자이거나 피해망상중에 걸린자라고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두고 그 무슨 《안보위협》, 《위협》을 떠들며 군사대국화야 망실현에 날뛰는 일본의 행태를 보면 정신이상이거나 고질적인 제질열병이 발작한다고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

그 무슨 《대조선제재의 엄격한 리행》, 《미일동맹 강화》를 떠벌이는가 하면 자국내에서 《북에 의한 안보불안》을 여론화하는 일본의 망동은 말그대로 도적이 제발 지린다는 격이다.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권

리인 자위적조치를 《안보위협》이라고 떠벌이는 흥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최근 십나라속속들이 노는 꼴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단적인 실례가 《적지공격능력》보유를 비롯한 군사대국화책동의 본격화이다.

최근 일본은 그 누구의 《위협》과 《일본의 안보환경이 매우 위협》하다는 구실로 《적지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천만US\$를 탕진하며 전자기로 개박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거기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과 방위예산증액 등 군사적팽창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자국내에 미국의 증거리란도 미싸일이나 순항미싸일을 배치할 기도도 드러내었다.

지나해말부터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헌법개정론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은 대조선압박을 위한 《한미일3자공조》를 적국화해야 한다. 대조선압박에 남조선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등으로 해외진출의 발판을 본격적으로 닦고 있다.

정의와 문명에 대한 용납 못할 유린

《사도광산에도 조선인이 동원됐지만 대부분이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도 합법적인 동원이지 강제노동은 아니다》

이것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십나라속속들이 내뱉는 말이다.

이미 지난해에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모집, 알선, 징용 등은 강제노동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정식립장을 발표하였으며 사도광산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조선인에 대한 대우와 임금제도, 근무장려방안 등은 대체로 일본인노동자와 같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조선인강제노동을 부인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얼마나 위험하고 악착했던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더우기 일본우익세력들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에도 《채굴이나 운반 등 위험한 경내작업은 대부분 조선인이 담당했다》는 자료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강제노동이 없었다고 하는 일본당국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변벤스롭고 후안무치한 무리들인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왜나라속속들이 조선인강제징용피해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한것은 과거법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은 커녕 오히려 극구 미화하면서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반인륜적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죄악은 한줄기에서 자라나고 했다.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사도섬이 니이가타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 볼 때 목숨을 내뱉 이들의 탈출은 광산에서의 고역이

다현에서 1980년대에 발간된 《니이가타현사》의 《강제련행된 조선인》이라는 항목에는 《1939년에 시작된 로부동원계획은 명칭이 《모집》, 《알선》, 《징용》으로 바뀌었지만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련행했다는 사실에선 같다》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도쿄신문도 《《니이가타현사》는 사도광산에 대해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련행한 사실》이 있고 차별대우때문에 탈주와 파업이 일어났다고 명기하였다. 다른 여러 문헌도 이를 뒤받침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1940년대초에 사도광산측이 작성한 보고서도 이를 립중해주고있다.

보고서에는 광산에서 일하던 1000여명의 조선사람들 가운데서 140여명이 섬을 탈출했다고 씌여져있다고 한다.

사도섬이 니이가타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 볼 때 목숨을 내뱉 이들의 탈출은 광산에서의 고역이

